

사도 바울의 빈 그릇과 아라비아 광야 체험

성경말씀: 고후4:3-11

우한 폐렴 코로나 19 사태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면역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 등 대다수 나라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 또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 그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인생의 광야로 생각하고 지난 4주에 걸쳐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하였다.

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코로나 이전 세상이 아니다. (딤후4:1-2)

적그리스도의 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어려운 국가, 민족성 사회주의/집단주의를 선호한다.

김정은이 멸망하고 북한이 무너져도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각만 난다.

그래서 미리 미리 광야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롬15:4).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 피폐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불 뱀이 나오는 곳

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였는가?

핵심: 신8:2-3,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

모세와 백성의 차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체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었다.

엘리아의 광야 체험, 그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모세처럼 빈 그릇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지난주에는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부활의 의미, 기독교의 핵심은 무활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 비결: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 체험

성령님께서 직접 광야로 데리고 가심, 인간의 모든 시험을 이겨 내심,

요일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시험 통과 후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끝까지 사명 완수하심

예수님도 광야를 체험하시고 빈 그릇이 되심,

겻세마네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마26:39).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빈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은 신약 시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려 한다. <사도 바울의 빈 그릇과 광야 체험> 바울에게도 광야 체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빈 그릇의 의미를 남겨 주었다.

사도 바울의 삶

위키 백과: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편(히브리서 포함 14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선했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혹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그 안에서의 경배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동포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 그들의 고소로 인해 그는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갔다.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그의 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기록되어 있다.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상처로 인해 평생 걸어 다니기가 어려웠다. 때를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 코가 휘었다. 결국은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기쁨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다.

행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빌4:4,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미스터리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 편에서 하신 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도록 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 그릇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 바울이 목회함

고린도후서는 자기를 배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그의 인간적 비애가 들어 있다. 목사를 위한 서신

1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2절: 비밀스러운 일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3절: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4절: 이유

5절: 우리가 하는 일

6절: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7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금 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아니다. 던져 버리면 부서지고 마는 질그릇이다. 이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바로 여기에 바울의 인생과 사역의 핵심이 들어 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운다. 복음을 선포하며 투쟁한다. 그런데 내가 아니요. 내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나는 그분의 권능을 받아 두는 빈 그릇, 그것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의 투쟁은 자신의 투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투쟁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목사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그 결과 8-9, 목적 10절

그래서 그는 고후6:3-10을 기록함, 특별히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그는 빈 그릇이 되었을까?

바울은 분명히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갈1:15-18에 기록된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 기간: 3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

여하튼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회심 이후 삶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부분
 아라비아 사막은 엄청 넓은데 그는 어디로 갔을까? 왜 갔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다른 사도들처럼
 왜 곧바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왜 이 기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가 아니라 은밀한 곳 즉 광야가 필요하였다.
 30년간의 과거 회상, 자기의 미래 구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주님과 친교할 수 있는 곳
 이를 위해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듣기를 원했다. 광야의 바람소리 가운데 들리는 미세한 음성
영혼의 어두운 밤

다소의 사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dark night of the soul), 청교도들이 즐겨 사용한 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대개 고난과 고독의 시간, 그러나 끝에는 행복의 시간
 성경의 인물들: 많은 경우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심한 어려움, 눈물의 시간
 모세의 경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아라비아
 다윗의 고통의 시간: 베개에 눈물을 흘리던 시간(시56:1, 8)
 엘리야 역시 광야 생활, 시내 산, 아라비아
 마르티 루터의 고뇌의 시간
 침례자 요한 역시 유대 광야, 영이 강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도 침례 이후 공생애 시작 전에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셨다(마4:1).

그래서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한다. 고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인생의 초반, 중반, 말년에, 사역의 초반, 중간, 말년에 찾아 온다.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우울증
 심지어 스펀전 같은 위대한 목사에게도, 파이퍼에게도
 어찌면 욥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아라비아 광야 체험의 결론

반즈의 말: 회심 이후 공적인 사역으로 가기 전의 이 준비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1.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2. 우리의 일생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은 짧다.
3.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바울은 유대교 랍비가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 그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생활, 지금 같으면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원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여야 한다. 조직 신학,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리 길지 않다. 그럼에도 잘 준비해야 한다.
4. 질이 좋은 사역을 해서 영원히 족적을 남겨야 한다.

아라비아 경험을 통해 그는 빈 그릇이 되었다.

그의 설교, 삶, 사역에서의 자기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그의 생각과 비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광야의 체험으로 인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전 삶을 주님께 바쳤다.

빈 그릇의 의미(갈2:20)

광야를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19로 절망하는 분들, 병, 실직, 구직, 경제, 가정...

암 등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4.15 총선 패배,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나도 같이 울고 싶다. 이렇게 무지할까?

예수님 시대가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거부함

사도 바울의 시대, 마르틴 루터의 시대가 그랬다.

전 시대에 걸쳐 신자들은 조롱의 대상(히11:36-38)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자.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물리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고후4:7)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준 말(딤후4:16-18)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같이 서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